

# 장례 복식 문화에 관한 기초연구\*

## A Pilot Study on the Funereal Garments Culture

김민정\*\* · 이현미 · 배미경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 용인송담대학 스타일리스트과 ·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MinJeong Kim · HyunMee Lee · MiKyoung Bae

Department of Consumer Information Science, KeiMyung University ·

Department of Stylists, YongIn SongDam College ·

Department of Consumer Information Science, KeiMyung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oke attention to the funeral costumes which has been neglected by academic fields and fashion industries. We investigated the traditional funeral garments by the literature reviews and the actual conditions by the questionnaire.

For the data analysis, 525 questionnaires for male and female in Seoul, Daeagu, Jeonju and Busan were collected. Men mainly wore the western style black suits, women wore the traditional white funeral costumes during the funeral service. Most of the respondents were dissatisfied with the funeral garments. We investigated the styles, the materials and the colors of the funeral garments which were favored by the consumers. The preferences and the criteria of the funeral garments were different with sex, age, income, educational levels, religion and occupational status of husband partly.

Key Words : the funeral costumes, the funeral related fashion industries

## I. 서론

장례는 유교적인 전통이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시되어 온 문화의 한부분이다. 喪禮는 사망에 대하여 애도를 표시하는 상중의례로서의 여러 행위이다. 喪은 哀의 의미로 죽은 자에 대하여 슬픔을 통곡한다는 의미에서 상례의 전 과정은 哀痛之情을 표현하는 의례이며, 죽음을 맞이하여 시신을 갈무리하고 매장이나 화장하는 제식이자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고인을 전송하는 의식이다. 그리고 葬禮는 상례하는 기본의식으로 입중에서 습, 염 등의 과정을 거쳐 입관하고 매장할 때까지의 의례를 말한다. 우리의 관혼상제 의례 중 가장 엄숙하고 정중하여 그 절차가 까다롭고 이론이 구구한 것이 바로 상례이다.

인간의 사회생활 중 의생활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을 다시 논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장례에서 의복의 중요성 또한 매우 크다. 상례는 민족의 생사관과 祖靈관을 나타내며, 오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민족의 관념적 사고가 잘 나타나고 있다. '죽음'이란 것은 슬픈 의미를 가지면서도 내세에 대한 경건함을 표시하는 의례로, 전통 상례에서는 수의와 상복으로 이를 표하였다. 특히 사별의 애도지정은 전통상복의 五服형식으로 표현되었다. 오복은 고인과의 친족, 원근관계에 따라 엄격히 차별 적용되었고, 상례절차 중 입중과 관련된 절차가 끝나면 상주들은 고인과의 가족관계에 따라 정식으로 이러한 상복을 착용하였는데 이를 成服이라 하였다. 그리고 성복례를 지낸 다음에야 비로소 외부의 조문 손님을 맞이하였다.

상장례 복식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의례복에 대한 연구의 일부로 상복에 대한 연구가 일부 포함된 이

\* 이 연구는 계명대학교 연구소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 Corresponding author: MinJeong Kim  
Tel: 053) 580-5862 , Fax: 053) 580-5313  
E-mail: kmjng@kmu.ac.kr

선재(1990), 나수임(1996, 2000)의 연구와 수의에 대한 유희경, 김미자, 강순제(1989), 박성실, 고부자(1989), 유관순(1990, 1999), 순남숙(1992, 1999)의 연구, 조선시대 상복에 대한 문헌연구인 김희숙(1984), 조우현(1989)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 상복은 많은 사람들이 착용해 왔고, 또 끊임없이 착용되어야 하는 중요한 의례복의 일부이나 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적었고, 특히 현행 상복에 대한 저술이나 연구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오늘날은 전통상복의 사회적 의미와 착용절차는 거의 사라졌고, 일정한 기준없이 한복과 양복이 장례복으로 혼용되고 있으며 이 또한 성별이나 연령, 종교, 지역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이 분야의 패션산업도 영세하고 열악하며 시장의 규모나 유통경로조차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다. 혼례복 관련 산업은 활성화되고 고급화되어 큰 규모의 패션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비해 장례복 산업은 대조적으로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전통문화와 현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장례문화의 정착과 함께 장례복식에 대한 인식을 재고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 분야의 패션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 일환으로 선행연구가 전무한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 장례복식문화를 정립하고 장례복식과 관련된 패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초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상장례복식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상장례복식의 사회적 의미와 종류를 파악한다. 둘째, 장례복식에 대한 실태조사로 현재 장례복의 착용실태를 알아본다. 셋째, 복식에 대한 의식조사와 장례복에 대한 불만족 요인, 평가기준 등을 규명한다.

## II. 전통적 상장례 복식의 사회적 의미

### 1. 수의와 역복

#### 1) 수의

죽은 이에게 입힐 옷과 소, 대렴에 사용하는 이불 등

을 수의라고 한다. 남자의 수의로는 바지, 저고리, 속바지, 周衣<sup>1)</sup>, 도포, 瞑目<sup>2)</sup>, 握手<sup>3)</sup>, 掩頭<sup>4)</sup>, 버선, 신, 조낭<sup>5)</sup> 소렴금, 대렴금, 天衾<sup>6)</sup>, 地衾<sup>7)</sup>, 베개를 준비한다. 여자의 수의로는 속곳, 바지, 단속곳, 치마, 저고리(삼겹 : 속적삼, 속저고리, 겹저고리), 원삼, 명목, 악수, 엄두, 버선, 신, 조낭, 소렴금, 대렴금, 천금, 지금, 베개를 준비한다. 상을 당한 후에 급히 수의를 만들려면 잘 만들기 어렵고, 또 시간이 걸려 치장 계획에 차질이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선시대에는 나이가 많은 노인이 계신 집안에서는 윤년이나 윤달을 택하여 수의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 날을 택하고 친족 가운데 잘 만들 줄 아는 사람의 지휘로 정성을 들여 만들었다. 수의는 겹으로 지으며 산 사람과 반대로 오른쪽 섭이 밖으로 여미어지도록 봉제한다.

이 수의로 시신을 싸는 단계가 小殮이다.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의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갈아 입힌다. 속바지와 적삼을 입히고, 망건을 씌우고, 버선을 신긴 후에 다시 겹바지를 입히고, 대님을 매고, 행랑을 치고, 요대를 맨다. 저고리, 주의, 도포를 함께 겹쳐서 펴놓고, 네 사람이 시신의 상하를 일체히 들어서 겹쳐서 펴놓은 겹옷 위로 옮겨서 겹옷을 입힌다. 大帶를 매고, 한지나 삼베 또는 명주로 만든 신을 신기고 머리에는 관이나 유건을 씌운다. 머리카락, 오른손뿔, 왼손뿔, 오른발뿔, 왼발뿔을 깎아 다섯 개의 작은 주머니에 각각 넣어 두었다가 大殮시에 함께 넣도록 한다. 미리 준비하여 둔 불린 쌀과 엽전 또는 동전 세 닢을 버드나무 손가락으로 입속에 세 번 떠 넣는다. 불린 쌀과 엽전 또는 동전을 입에 넣는 것은 망인이 저승길에서 식량과 노자로 쓰도록 드리는 의식이다. 充耳로 좌우의 귀를 막고, 幅巾을 씌우고, 명목으로 눈을 싸매고, 두팔이 아래로 처지지 않게 한지나 삼베로 숨을 싸서 턱밑을 권다. 팔에 土手를 끼우고 악수로 손을 가리고, 신을 신긴 다음 양쪽다리의 빈 곳을 옷으로 채우고 발끝까지 똑바르게 한다. 두루마기와 도포를 거두어 여미되 옷깃은 산 사람과 반대로 오른쪽으로 여민 다음 條帶, 大帶를 동심결로 맨다. 천금과 지금으로 시신을 싸고, 염포로 시신을 묶는다. 다음으로 시신을 입관하는 대렴을 행한다.

- 1) 주의란 두루마기이다.
- 2) 명목은 눈을 가리는 것이다.
- 3) 악수는 손을 싸매는 것이다.
- 4) 엄두는 머리를 가리는 것이다.
- 5) 조낭이란 염습할 때 손, 발뿔을 깎아 넣는 주머니이다.
- 6) 천금은 시신을 덮는 이불이다.
- 7) 지금은 시신 밑에 까는 요이다.

## 2) 역복

易服이란 주상, 주부이하 근친들이 상을 당하여 화려한 복식을 철거하는 평상복 제거과정이다. 남자 상제는 흰 두루마기를 입되 父喪이면 왼쪽 소매를 끼지 않고 어깨에 엮으며, 母喪이면 반대로 오른쪽 소매를 끼지 않고 어깨에 엮게 되는데 이것을 보고 부상인지 모상인지를 구분한다. 이것을 삼입이라 한다. 주상, 주부와 자손들은 버선을 신지 않고 방석을 깔지 않는다. 아들과 여자 상제들은 머리를 푼다. 시신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이러한 과정은 차마 죽음을 인정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또한 죽은 자에 대한 애도의 정을 표시하는 과정이다.

## 2. 상복

소렴, 대렴이 끝나면 비로소 主喪이하 상제들은 상복으로 갈아입는데, 이것이 成服이다. 과거에는 빨라도 오일장을 하였으므로 1일에는 수시하고, 2일에는 소렴하고, 3일에는 대렴하고 4일에는 성복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제들은 '五服제도'에 정해진 바대로 완전한 상복을 갖추어 입음으로써 비로소 죽음을 인정한다는 것을 표시한다. 오복제도에 의한 상복은 죽은 자에 대한 비애의 외적 표현으로, 죽은 자에 대한 친족, 원근관계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등급의 차이가 표시되었고 혈족체계에 따라 등급이 분화된다. 이는 斬衰, 齊衰, 大功, 小功, 總麻의 5등급으로 이 등급에 따라 喪期가 정해지며, 상복의 재질과 봉제방법도 달라진다.

### - 참취

아버지의 상에 입는 服을 말하며, 기간은 3년이다. 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는데 3년이 걸린다는 것에 대한 보은으로 3년을 喪期로 하였다. 참취는 重大服으로 주상, 주부, 아들, 며느리, 딸이 착용하였다. 참취에서 斬란 것은 의복의 밑단을 꿰매지 않는 것으로 슬픔을 표현하고 장식하지 않음으로 지극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참취의 남자상복은 이른바 굴건제복으로 머리에 거친 삼베로 주름을 지어 만든 건을 쓰고 삼 끈을 달아 묶으며, 것이 없고 소매가 넓은 옷을 입고 삼으로 만든 허리띠

를 두르며 쥘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는 것이다. 가장 거친 三升의 삼베로 옷을 지으며 바느질을 성글고 거칠게 하여 실밥이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삼베 조각들을 앞뒤에 달아서 걸인들의 옷처럼 의도적으로 남루하게 하여 부모를 돌아가시게 한 죄인이 좋은 옷을 입을 수 없다는 죄의식을 드러내었다. 이와 같이 포편을 부착하는 이유는 부모의 상을 당하여 슬픔이 곳곳에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상주가 짚는 지팡이 역시 상징성을 지닌다. 아버지를 잃은 경우에는 대나무 지팡이를, 어머니를 잃은 경우에는 오동나무 지팡이를 짚는데, 이는 주상과 죽은 자와의 관계를 쉽게 알리는 상징물의 역할을 한다<sup>8)</sup>.

嫡孫이 그의 父가 사망하여 조부, 증조, 고조를 위해 承重<sup>9)</sup>하는 자와 또 아버지가 嫡子를 위해 입는 복도 이와 같으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입는 복도 이와 같다.

### - 재취

어머니의 상에 입는 복을 말하며, 기간은 3년이다. 아버지께서 생존해 계시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와 출가한 딸, 서자, 적손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조모, 증조모, 고조모를 위해 승중한 자와, 어머니가 적자를 위해서는 3년 상을 입지 않는다. 재취복은 참취복보다 약간 덜 성긴 삼베로 만들며, 밑단은 호는 것이라 하였다(나수임, 2000).

### - 대공

종형제, 종자매, 중손자녀(말손자 외의 손자)를 위하여 입는 복으로 기간은 9개월이다. 大功과 小功에서 말하는 공은 삼베를 짠다는 공을 말함이니 거칠고 가늠을 의미한다. 의례상복편에 대공이란 冠에 六升布를 사용하여 갓물에 삶지 않는 것이라 하였으니 대공이라는 명칭은 布의 바탕의 功으로 인하여 명명된 것이다(나수임, 2000). 주로 삶아서 마전을 한 거친 삼베로 복을 지었다.

### - 소공

중조부, 증조고, 형제의 손자, 종형제의 아들, 재종형제, 생질을 위하여 입는 복을 말하며, 기간은 5개월이다. 중조모, 남편 형제의 손자, 남편의 종형제의 아들, 형제의 부인, 남편의 형제, 제부와 사부끼리도 소공복을 입는다. 소

8) 조문객들은 누구의 상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의례에 맞는 조문을 할 수 있다. 지팡이의 재료는 이러한 사정을 알려주는 중요한 상징물로서 대나무는 마디가 있고 색깔이 짙으나 오동나무나 버드나무는 흰색이고 마디가 없기 때문에 얼른 보기에든 부친상인지 모친상인지 구별할 수 있다. 아버지는 자식을 기르느라 속이 비어 버렸기 때문에 대나무를, 어머니는 자식들이 애를 태워 속이 찼기 때문에 오동나무를 지팡이로 쓴다고 한다. 또한 대나무는 뿌리 부분인 竹本이 밑으로 가도록 짚으며 오동나무나 버드나무는 위를 둥글게, 아래를 네모나게 깎아서 上圓下方의 모양을 이루도록 하여 사용하였다. 竹本은 땅을, 죽순은 하늘을 상징하듯이 오동나무 역시 上圓은 하늘을, 下方은 땅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징에 맞도록 지팡이를 짚어야 땅자의 영혼이 이승인 땅의 세계에서 저승인 하늘의 세계로 온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9) 승중이란 부친을 대신하여 복을 입는 것이다.

공이란 의례에 대공에 비해 다듬는 것이 곱고 세밀하다고 하였으니, 소공 역시 布의 질감으로 명칭을 붙인 것이다. 소공은 삶아서 마전을 한 고운 삼베로 만들었다.

#### - 시마

중중조부, 중중조모, 증조의 형제와 자매, 형제의 증손, 종조부모, 종형제의 자매, 외손, 내외종형제를 위하여 입는 복을 말하며, 기간은 3개월이다. 남편의 형제의 증손, 남편의 종형제의 손자, 남편의 종형제의 아들, 서모, 유모, 사위, 장인, 장모의 복도 같다. 시마의 縵는 실의 곱기가 비단과 같음을 의미하니 이 역시 布의 질감으로 명칭을 붙였음을 알 수 있다. 시마는 가는 삼베로 지었다.

이렇게 성복을 할 때 풀어내렸던 머리는 건어올리고, 맨발이었던 발에도 버선을 신는다. 그리고 한쪽 팔을 빼었던 소매도 제대로 꿰어 입는다. 상복의 재료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복등급의 어느 경우에도 마포를 사용하였고 조성의 정도에 따라 상의 경중을 표현하였다(김영자, 1992). 즉 조선시대 상복 제도는 상이 중할수록 수공을 들인 것을 사용했으며 착용 기간이 길어졌다. 또 평상복과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상복은 장기간 돌보지 않고 착용하는 것이므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솔기를 외향으로 처리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소재가 주로 서민층이 주로 쓰던 삼베로 바뀌었고, 조선시대의 전통수의제도에 뿌리를 두었으며 전수되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초래되었다. 특히 1980년대부터는 수의의 기성화 시대가 도래하여 거의 전체 수의의 95% 이상이 기성복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행수의는 과거의 전통과 현재의 상업주의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조효숙, 안지원, 2002).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장례복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대상은 서울, 대구, 전주, 부산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성인남녀 800명이었다. 표집방법으로는 편의할당표집(Convenience Quota Sampling)을 사용하였고, 할당 비율은 서울: 대구: 전주: 부산의 비율이 2: 1: 1: 1 이었다. 자료수집방법은 질문지를 이용한 개인응답법을 사용하였다.

조사기간은 2002년 2월 2일부터 15 일 까지 2주 동안

이루어졌고, 총 800부를 배부하여 525부를 회수하였고, 응답이 부실한 질문지를 제외한 479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 2. 측정도구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질문지에는 장례복의 착용경험에 대한 문항과 장례복 및 현행장례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하는 문항,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장례복에 대한 국민의식은 장례복의 선호 스타일, 소재, 색상에 대한 문항, 평가기준에 대한 문항, 아동용 장례복의 개발 필요성에 대한 문항, 장례복의 재사용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항들은 선행연구가 없어 관련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진들이 개발하였고, 이를 의류학계 8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집단이 검토한 후 수정·보완하였다.

####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성격

본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성격은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질문지 내용 중 장례를 경험한 경우에 응답할 수 있는 문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40대가 48.4%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이 분포되어 있다. 또 소득과 주관적인 생활수준은 중간계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1. 장례복의 착용실태 분석

##### 1) 남녀 상복 착용경험

남자는 검은색 양복에 건을 쓰고 완장을 찬 경우가 47.1%로 가장 많았고, 상대적으로 굴건제복이나 한복과 같은 전통적인 상복을 착용한 경우는 합하여 18.1%에 그쳤다. 한편 여자의 경우는 70%가 넘게 흰색 한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룬다.

상복 착용시 신은 신발은 구두가 55.7%로 다수를 이루고 있다.

##### 2) 상복 구입장소

상복은 주로 장의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례문화연구(김민정, 2006)에서 대부분의 소비자(83%)가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성격

변수	분류	N(%)	변수	분류	N(%)
성별	남	309(64.6)	주성장지	대도시	212(44.4)
	녀	169(35.4)		중소도시	164(34.3)
연령	20대이하	98(20.4)		종교	읍면소재지
	30대	97(20.2)	불교		100(20.9)
	40대	233(48.4)	기독교		139(29.0)
	50대이상	53(11.0)	천주교		63(13.2)
			없음		173(36.1)
월소득	100만원미만	20 (4.4)	주관적 생활수준	기타	4 (0.8)
	100-200만원미만	104(22.8)		하하	3 (0.6)
	200-300만원미만	141(30.9)		하상	34 (7.4)
	300-400만원미만	72(15.8)		중하	174(37.7)
	400-500만원미만	57(12.5)		중상	230(49.8)
	500만원이상	62(13.6)		상하	2 (4.3)
가구주 직업	전문직	83(21.1)	아내직업	상상	1 (0.2)
	관리직	91(23.1)		가정주부	238(64.9)
	사무직	52(13.2)		전문직	44(12.0)
	판매서비스직	72(18.3)		사무직	25 (6.8)
	생산직	31 (7.9)		판매서비스직	35 (9.5)
	무직 기타	65(16.6)		생산직	4 (1.1)
가구주 교육수준	중졸이하	12 (2.9)	아내 교육수준	무직, 기타	5 (1.4)
	고졸	112(26.8)		중졸이하	21 (5.2)
	전문대졸	40 (9.6)		고졸	142(35.8)
	대졸이상	254(60.8)		전문대졸	43(10.7)
			대졸이상	195(48.6)	

<표 2> 남녀 상복 착용 스타일

N(%)<sup>주</sup>

남자	굴건제복	검은색 양복	검은색 양복+건, 완장	한복
	31(14.0)	76(34.4)	104(47.1)	9 (4.1)
여자	굴건제복	검은색 양장	흰색한복	검은색 한복
	16 (7.3)	26 (1.8)	159(72.3)	19 (8.6)

주) 5년 내에 상을 치러 본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도록 하여 사례수가 221임.

<표 3> 상복 착용시 신발의 종류

N(%)

	전통고무신	개량고무신	구두	운동화	기타
착용 신발	26(12.9)	23(11.4)	112(55.7)	31(15.4)	9(5.4)

<표 4> 상복 구입장소

구입처	장의업체	재래시장	기타	계
N(%)	164(82.4)	17(8.5)	18(9.0)	199(100.0)

장의업체가 장의용품가격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었고, 장의용품에 대한 강요나 바가지가 심하고(그렇다가 53.1%), 장의용품의 가격이 비싸다고(그렇다가 73%) 응답한 결과를 고려한다면 소비자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본다. 이는 상례가 급작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도 그 원인이 되나 그 보다도 장례복 유통시장이 아직 미분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공급자간 경쟁이 적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관혼상제 중 상례는 문상과정에서 직접적이고, 개별적으로 문상객을 맞게 된다. 또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혼례복뿐 아니라 장례

&lt;표 5 &gt; 남녀 상복 구입가격

N(%)

	10만원미만	10-20만원	20-30만원	30-40만원	40만원 이상
남자	53(29.3)	81(44.8)	33(18.2)	9 (5.0)	5 (2.8)
여자	93(50.0)	60(32.3)	25(13.4)	6 (3.2)	2 (1.1)

&lt;표 6&gt; 상복 처리실태

N(%)

	소각	보유	모르겠다	기타
상복처리	120(59.4)	47(23.3)	22(10.9)	13 (6.4)

&lt;표 7&gt; 아동 상복 착용 실태

아동상복 착용실태	N(%)
아동상복으로 검은 색 옷을 새로 구입	21(10.3)
입던 옷 중 검은색이나 진한색 옷을 입힘	86(42.4)
평상복을 입힘	93(45.8)
기타	3 (1.5)

복에 대한 수요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현재의 생산구조와 유통구조가 소비자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대표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최근 이벤트회사에서 흔레뿐 아니라 상례에 대해서도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등장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 3) 상복 구입가격

상복을 구입한 가격대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고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상복은 양복이 주를 이루고 있고 여성상복은 흰색 면 한복이 주를 이루기 때문으로 보인다.

### 4) 상복 사용후 처리실태

상복을 사용한 후에는 <표 6>에서와 같이 59.9%가 소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아동 상복 착용실태

아동의 경우 상복을 어떻게 착용하는가를 알아본 결과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검은 색 옷을 새로 구입한 경우는 10.3%를 차지하고 있고, 80% 이상이 입던 옷 중 검은 색이나 진한 색 옷을 입히거나 평상복을 입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 나라 경우 40대 이하의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아동상주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아동상복 시장도 개발되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 6) 착용 상복에 대한 만족도

5년 내 상복을 착용한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에게 착용한 상복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예의와 색상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상복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3미만으로 만족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격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는데, 이는 소비자가 품질에 비해 가격이 비싸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구매가능한 상복의 수준이 소비자의 기호를 전혀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lt;표 8&gt; 착용 상복에 대한 만족도

N(%)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평균
1) 디자인 만족도	9(4.5)	43(21.4)	123(61.2)	25(12.4)	1(0.5)	2.83
2) 치수 만족도	12(6.0)	39(19.5)	115(57.5)	33(16.5)	1(0.5)	2.86
3) 색상만족도	3(1.5)	24(11.9)	90(44.8)	79(39.3)	5(2.5)	3.29
4) 소재만족도	7(3.5)	43(21.7)	108(54.5)	38(19.2)	2(1.0)	2.92
5) 활동만족도	8(4.0)	47(23.3)	104(51.5)	40(19.8)	3(1.5)	2.92
6) 품위만족도	9(4.5)	41(20.5)	113(56.5)	35(17.5)	2(1.1)	2.90
7) 예의만족도	2(1.0)	32(16.0)	114(57.0)	48(24.0)	4(2.0)	3.10
8) 계절만족도	13(6.5)	40(20.0)	108(54.0)	35(17.5)	4(2.0)	2.89
9) 관리, 실용만족도	11(5.5)	58(29.0)	101(50.5)	27(13.5)	2(1.0)	2.85
10) 가격만족도	13(6.5)	61(30.5)	101(50.5)	24(12.0)	1(0.5)	2.70

7) 상복 치수에 대한 만족도

상복치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이 5점 만점에 평균 2.86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부분별 상복 치수에 대한 만족도는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다.

상복 착용 실태와 만족도에 대한 이상의 결과를 통해 남자는 검은 색 양복에 건과 완장이 가장 보편적인 상복의 형태였고, 여자는 주로 흰색 한복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경우도 있던 옷 중 검은 색이나 진한 색을 입히거나 새로 검은 색 옷을 사입히는 경우가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착용했던 상복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매우 낮아, 현실적으로 상복관련 시장이 매우 미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상례의 특성상 장기간(3일이상), 직접적으로 문상객을 맞는 과정에서 가세를 과시할 수 있는 상복의 의미

는 오히려 예복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상복 즉 장례복 시장이 개발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장례복식에 대한 선호도

1) 상복 스타일 선호도

남자상복으로 선호되는 스타일과 여자상복으로 선호되는 스타일을 조사한 결과(<표 10>과 <표 11>), 남자상복으로 검은 색 양복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검은 색 양복에 건과 완장을 한 스타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굴건제복이나 한복 형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여자의 경우도 검은 색 양장에 대

<표 9> 착용 상복 치수에 대한 만족도

N(%)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평균
1) 상의 길이	8(4.0)	55(27.6)	101(50.8)	34(17.1)	1(0.5)	2.82
2) 소매길이	6(3.0)	51(25.8)	104(52.5)	36(18.2)	1(0.5)	2.87
3) 어깨넓이	4(2.0)	53(26.8)	105(53.0)	35(17.7)	1(0.5)	2.88
4) 칼라부분	5(2.5)	44(22.3)	102(51.8)	43(21.8)	3(1.5)	2.97
5) 하의길이	9(4.5)	54(27.1)	92(46.2)	42(21.1)	2(1.0)	2.87
6) 밑위길이	5(2.6)	50(26.2)	101(52.9)	34(17.8)	1(0.5)	2.87
7) 허리둘레	5(2.6)	44(22.8)	113(58.5)	30(15.5)	1(0.5)	2.89
8) 엉덩이둘레	4(2.1)	40(20.9)	112(58.6)	33(17.3)	2(1.0)	2.94
9) 전체적인 여유분	9(4.6)	43(22.1)	101(51.8)	40(20.5)	2(1.0)	2.91

<표 10> 선호되는 남자 상복 스타일

N(%)

	전혀 좋지 않다	좋지 않다	그저 그렇다	좋다	매우 좋다	평균
① 굴건제복	56(15.1)	119(32.2)	148(40.0)	40(10.8)	7 (1.9)	2.52
② 검은색 양복	2 (0.5)	8 (1.8)	82(18.6)	282(63.9)	67(15.2)	3.92
③ 검은색 양복 + 건, 완장	10 (2.5)	21 (5.3)	88(22.2)	224(56.4)	54(13.6)	3.73
④ 흰색 한복	60(16.7)	107(29.8)	120(33.4)	68(18.9)	4 (1.1)	2.58
⑤ 검은색 한복	53(14.9)	111(31.2)	142(37.9)	46(12.9)	4 (1.1)	2.54
⑥ 개량복	72(20.0)	68(27.2)	133(36.9)	52(14.4)	1 (0.3)	2.55

<표 11 > 선호되는 여자 상복 스타일

N(%)

	전혀 좋지 않다	좋지 않다	그저 그렇다	좋다	매우 좋다	평균
① 굴건제복	75(21.3)	104(29.5)	133(37.8)	35 (9.9)	5 (1.4)	2.41
② 검은색 양장	13 (3.2)	40(10.0)	91(22.6)	207(51.5)	51(12.7)	3.60
③ 흰색 한복	22 (5.4)	48(11.7)	124(30.3)	185(45.2)	30 (7.3)	3.37
④ 검은색 한복	34 (9.1)	80(21.3)	121(32.3)	125(33.3)	15 (4.0)	3.02
⑤ 개량복	58(16.2)	111(31.0)	125(34.9)	55(15.4)	9 (2.5)	2.57

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이 흰색 한복, 검은 색 한복 순이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표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착용한 경험은 흰색 한복이 72.3%로 압도적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선호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선택이었다고 본다.

## 2) 상복 소재

<표 12>에서보는 바와 같이 가장 선호되는 상복소재로는 면직물로 나타났다. 상복의 소재로 중요한 요소로 땀 흡수가 잘되고, 계절에 맞으며, 구김이나 더러움을 타지

않고 가벼운 소재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상복을 개발할 때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3) 상복의 색상

남녀 상복으로 선호되는 색상으로 알아본 결과는 <표 14>와 <표 15>와 같다. 남녀 모두 검은 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80%가 넘게 흰색 상복을 착용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기호가 시장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표 12> 상복 소재

N(%)

	전혀 좋지 않다	좋지 않다	그저 그렇다	좋다	매우 좋다	평균
① 삼베 등의 마직물	34 (9.4)	80(22.2)	125(34.7)	105(29.2)	16 (4.4)	2.97
② 면직물	7 (1.6)	28 (4.0)	120(26.9)	252(56.5)	49(11.0)	3.71
③ 모직물	34 (9.9)	75(21.4)	162(46.3)	73(20.9)	6 (1.7)	2.83

<표 13> 상복 소재 중요속성

N(%)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평균
① 옷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 소재	10 (2.4)	35 (8.4)	127(30.6)	218(52.5)	25 (6.0)	3.51
② 구김이 가지 않는 소재	9 (2.1)	28 (6.5)	88(20.3)	268(61.9)	40 (9.2)	3.70
③ 땀 흡수가 잘 되는 소재	5 (1.2)	19 (4.5)	70(16.5)	274(64.5)	57(13.4)	3.84
④ 옷맵시가 나는 소재	21 (5.3)	98(24.6)	173(43.5)	93(23.4)	12 (3.0)	3.04
⑤ 더러움을 잘 타지 않는 소재	6 (1.4)	26 (6.0)	97(22.5)	264(61.1)	39 (9.0)	3.70
⑥ 가벼운 소재	7 (1.6)	28 (6.6)	90(21.2)	260(61.2)	40 (9.4)	3.70
⑦ 촉감이 좋은 소재	9 (2.3)	31 (7.8)	139(34.8)	188(47.0)	33 (8.3)	3.51
⑧ 계절에 맞는 소재	9 (2.1)	21 (4.9)	87(20.2)	256(59.4)	58(13.5)	3.77

<표 14> 남자상복 색상에 대한 선호도

N(%)

남자 상복	전혀 좋지 않다	좋지 않다	그저 그렇다	좋다	매우 좋다	평균
1) 검은색	3 (0.6)	9 (1.9)	41 (8.6)	333(89.7)	89(18.6)	4.30
2) 흰색	37(10.2)	71(19.5)	130(35.7)	110(30.2)	16 (4.4)	2.99
3) 생지색주	36(10.0)	93(25.8)	178(49.4)	46(12.8)	7 (1.9)	2.71
4) 회색	45(12.5)	113(31.5)	158(44.0)	39(10.9)	3 (0.8)	2.64

주) 생지색이란 염색, 가공하지 않은 원단 그대로의 색을 말한다.

<표 15> 여자상복 색상에 대한 선호도

N(%)

여자 상복	전혀 좋지 않다	좋지 않다	그저 그렇다	좋다	매우 좋다	평균
1) 검은색	7 (1.6)	24 (5.6)	61(14.1)	266(61.6)	73(16.9)	3.94
2) 흰색	20 (4.9)	39 (9.5)	10(24.6)	209(51.0)	41(10.0)	3.52
3) 생지색	32 (8.9)	92(25.7)	178(49.7)	48(13.4)	7 (2.0)	2.85
4) 회색	49(13.7)	102(28.5)	165(46.1)	40(11.2)	2 (0.6)	2.56



2) 아동용 상복 개발의 필요성

아동용 상복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본 결과 <표 16>에서와 같이 60% 정도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상복 재사용에 대한 태도

상복 재사용에 대해서는 50%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보유하는 경우는 23.3% 정도로 상복을 사용 후 처분행동에서는 태도와 행동간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7>

4)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장례복에 대한 선호도 분석

성별, 연령별, 월평균 가계소득수준별, 남편의 교육수준별, 종교별, 남편의 직업별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장례복에 대한 선호도와 장례복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독립변수가 명목척도인 성별, 종교별, 남편직업별인 경우는  $\chi^2$ 를 구하였고, 독립변수를 서열변수인 연령별, 월평균 가계소득별, 남편의 교육수준별에 따라서는 Gamma를 구하였다. 그러나 변수가 너무 많아 일일이 교차분석표를 제시하는 대신 변수간의 관계와 차이를 유의도 수준을 기준으로 정리하여 <표 18>에 제시하였다.

<표 16> 아동용 상복 개발의 필요성

N(%)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평균
아동용 상복	61(13.0)	132(28.0)	137(29.1)	134(28.5)	7(1.5)	2.77

<표 17> 상복 재사용에 대한 태도

N(%)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평균
상복 재사용	49(12.2)	68(16.9)	80(19.9)	180(44.7)	26(6.5)	3.16

<표 18>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장례복에 대한 선호도와 태도<sup>주</sup>

변수	성별	연령	월소득	남편교육	종교	남편직업	
남자	굴건제복	n.s	*	n.s	**	n.s	***
	검은색 양복	n.s	***	n.s	n.s	*	*
	검은색 양복+건,완장	n.s	*	n.s	n.s	*	n.s
	흰색 한복	n.s	n.s	n.s	n.s	n.s	*
	검은색 한복	n.s	n.s	*	n.s	n.s	n.s
	개량복	n.s	n.s	n.s	n.s	n.s	n.s
여자	굴건제복	n.s	***	*	***	n.s	n.s
	검은색 양장	***	*	n.s	n.s	n.s	*
	흰색 한복	*	n.s	n.s	n.s	n.s	n.s
	검은색 한복	n.s	**	*	n.s	n.s	*
	개량복	n.s	n.s	n.s	n.s	n.s	n.s
소재	마직	n.s	**	*	n.s	*	n.s
	면직	n.s	***	n.s	n.s	*	n.s
	모직	n.s	n.s	*	**	n.s	n.s
아동상복 개발의 필요성	**	*	n.s	n.s	n.s	n.s	
남자 착용 상복 스타일	*	*	n.s	n.s	n.s	**	
여자 착용 상복 스타일	*	***	**	n.s	n.s	*	
상복재사용에 대한 태도	n.s	n.s	n.s	n.s	n.s	n.s	

주 1) 이 표는 성별, 종교, 남편직업별 장례복에 대한 선호도와 태도를  $\chi^2$  값을 구하고, 연령, 월소득, 남편교육수준별 장례복에 대한 선호도와 태도는 Gamma를 구하였다. 각 셀별로 각각의 교차분석표의 수가 너무 많아 교차분석표를 제시하는 대신 각 변수별로 장례복에 대한 선호도와 태도와의 관계를 유의도 수준으로 정리하여 나타냈다.

주 2) \* p< .05, \*\* p< .01, \*\*\* p< .001, n.s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남자상복에 대한 선호도는 굴건제복의 경우 연령, 남편의 교육수준, 남편의 직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검은색 양복은 연령이 어릴수록 종교와 남편의 직업에 따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은 색 양복에 건과 완장을 하는 것은 연령에 따라 종교에 따라  $p < .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여자상복으로 굴건제복에 대한 선호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월소득이 적을수록, 남편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선호하였으며, 성, 남편의 직업, 연령이 검은 색 양장에 대한 선호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검은 색 한복의 경우는 연령이 어릴수록, 월소득이 많을수록 선호하였고, 가장의 직업도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아동상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남성이, 연령이 어릴수록 필요성을 더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상복의 착용 경험 실태는 연령과 남편의 직업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여자상복은 젊은 사람들이 검은 색 양장을 입었고, 소득이 높은 계층과 가장 낮은 집단이 검은 색 양장을 입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 V. 결론 및 제언

###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례의 과정 중 실제로 그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으면서 이제까지 간과되어왔던 장례복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패션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이 분야의 선도적 연구라 할 수 있다. 문헌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상장례 복식의 종류와 그 사회적 의미를 파악한 후 장례복에 대한 의식을 규명하였다.

장례복 착용실태 조사를 위해서 20대 이상 성인 남녀 525명을 설문 조사하였다. 착용실태 조사에서 남자의 경우는 검색 양복에 건을 쓰고 완장을 찬 경우가 가장 많았고, 여자의 경우는 70%가 넘게 흰색 한복을 착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례복 착용시 신은 신발은 구두가 55.7%로 가장 많았다.

장례복은 주로 장의업체에서 구입하였다. 장례복 구입 가격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높았다. 이는 남자 장례복은 양복이 주를 이루고 있고, 여자 장례복은 흰색 면 한복이 주를 이루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의 장례복 가격과 비교해 볼 때 소비자들이 지불했다고 하는 가격과 시판 장례복의 제시가격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장례복만 따로 계산하는 경우가 없고 모든 장례비용이 함께 지

불되어 있어 장례복의 가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장례복은 사용 후 60%가 소각했다고 하였다. 아동의 경우 장례복이 따로 없어 평상복을 그냥 입히거나 입던 옷 중 검은색이나 진한 색 옷을 입혔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례복을 착용한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들에게 장례복의 요인별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예의와 색상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상복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3미만으로 만족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격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는데, 이는 소비자가 품질에 비해 가격이 비싸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례복의 치수에 대한 만족도 수준도 역시 낮게 나타났다. 길이에 대한 만족도가 품(둘레)에 대한 만족도 보다 더 낮았다. 이와 같이 착용했던 상복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매우 낮아, 현실적으로 상복관련 시장이 매우 미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상례의 특성상 장기간(3일이상), 직접적으로 문상객을 맞는 과정에서 가세를 과시할 수 있는 상복의 의미는 오히려 예복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상복 즉 장례복 시장이 개발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장례복 산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장례복의 스타일, 소재, 색상 선호도를 조사했고, 장례복의 평가기준과 아동 장례복 개발의 필요성, 장례복의 재사용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였다. 남자 장례복으로는 검은 색 양복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여자의 경우도 검은 색 양장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실제 착용했던 것은 흰색 한복이 72.3%로 압도적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선택이었다. 가장 선호하는 장례복 소재는 면직물로 나타났다. 장례복 소재의 요소로는 땀 흡수가 잘 되고, 계절에 맞으며, 구김이나 더러움을 타지 않고 가벼운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장례복의 색상으로는 남녀 모두 검은 색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80%가 넘게 흰색 장례복을 착용했던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기호와 시판 장례복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동 장례복에 대해서는 60% 정도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장례복 재사용에 대해서는 23.3% 정도로 나타나 장례복 사용 후 처분행동에서는 태도와 행동간에 괴리가 있었다.

성별, 연령별, 월평균 가계소득수준별, 남편의 교육수준별, 종교별, 남편의 직업별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장례복에 대한 선호도와 장례복의 평가기준 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남자 장례복에 대한 선호도는 검은색 양복은 연령이 어릴수록 선호했으며 종교와 남편의 직업에 따라서도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여자 장례복으로 굴건제복에 대한 선호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월소

득이 적을수록, 남편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선호하였다. 성, 남편의 직업, 연령은 검은 색 양장에 대한 선호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검은 색 한복을 연령이 어릴수록, 월소득이 많을수록 선호하였고, 가장의 직업도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아동 장례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남성이, 연령이 어릴수록 필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제언

장례는 갑작스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장례복을 미리 준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짧은 기간만 사용하고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인해 이제까지 장례복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았다. 그러나 상례의 특성상 직접적이며 개별적으로 문상객을 맞는 과정에서 장례복은 예의와 품위를 표할 수 있고, 또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혼례복뿐 아니라 장례복에 대한 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현재의 장례복 시장은 반드시 재고의 필요가 있다. 장례복 시장은 우리나라 패션시장 중 그 생산구조와 유통구조가 소비자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대표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장례복 개발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패션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장례복식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은 장례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반드시 장례문화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복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해 볼 때 오히려 의생활의 개선으로 장례문화의 개선이나 재정립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의류학계의 교육자, 연구자, 의류산업계의 실무자들은 장례복식의 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인식을 가지고 연구,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서울보건대학 장례학과나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의 장례문화전공에서도 의류학 전공자들과 학제간 연구를 통해 상장례복식을 하나의 교과목으로 개발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 혼례에 이어 상장례에 대해서도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상조서비스 업체가 등장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장례서비스 중 장례복 서비스는 우선 순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점차 장례복의 의미가 예복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될 전망이므로 장례복 서비스에도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장례토털서비스업체나 병원의 장례업체에는 의류 전문가가 별도로 고용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체연구

나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므로 정부지원의 산학연계를 통해 이 분야의 실질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실상 이 분야의 연구가 워낙 미비하여 산학연계 모델을 통해 가장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패션분야라 할 수 있다. 소비자행동조사와 제품기획, 개발 등은 학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넷째, 이 분야의 의류시장은 아직 미분화된 형태로 공급자간 경쟁이 적다. 그리고 조사한 바와 같이 영세한 소규모의 업체들이 대부분이므로 이는 의류업계의 하나의 틈새시장이 될 수 있다. 상장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빈약한 시장성 때문에 지금까지 버려둔 시장이나 개발여하에 따라 하나의 시장으로 성립되기에 충분한 시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상장례복을 이원화하여 고급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시장이 전체 상장례복 시장을 리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구체적인 결과로 장례복의 스타일은 양복이나 양장의 선호도가 높았다. 특히 여성 장례복의 경우 검은색 양장에 대한 선호가 높았고, 장례복 색상으로 남녀 모두 검은 색을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결과와 여성의 경우 80%가 넘게 흰색 한복을 장례복으로 착용했다는 결과를 비교해 볼 때, 소비자의 기호가 시장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 소비자들의 평가기준이나 선호에 대한 연구들이 더 많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의류업체의 장례복 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다섯째, 최근 성인병 등으로 40대 이하 또는 40대의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고 따라서 아동상주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또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아동 장례복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60%가 아동장례복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고급장례복 시장에 아동 장례복이 함께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장례복의 가격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가격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는데, 이는 장례복이 단독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례서비스와 함께 계산되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탓도 있겠으나, 한편 소비자가 품질에 비해 가격을 비싸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즉 현재 구매 가능한 장례복의 수준이 소비자의 기호를 전혀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소득 만불의 이 시점에서 예를 중시해오던 우리의 전통문화를 재정립하고 국민 소재시장에도 생존가능할 것이며, 이에 대한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일곱째, 연구결과 최근 재래시장을 통한 수의, 장례복 공급은 거의 존재위기에 처해 있고 대부분이 장례업체를 통해 수의와 장례복을 구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유통형태로 인터넷 판매가 제시되고 있다. 이 인터넷 업체들은 대부분이 기존의 장례업체로 off line과 on line 영업을 겸하고 있다. 장례복은 site 조차 따로 없는 실정이다. 장례복전문업체도 인터넷 판매에 눈을 돌리고 기존의 장례토탈업체와 링크하여 자활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무점포 소매업인 인터넷 판매는 소규모 자본으로도 경쟁이 가능하므로 이것이 장례복의 새로운 유통형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장례문화, 장례복식, 장례관련 산업

## 참 고 문 헌

- 국립민속박물관, 『영원한 만남 한국의 상장례』, 미진사, 1990.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복식 2천년』, 도서출판 신유, 1995.
- 김득중, 유송옥, 황혜성, 『우리의 전통예절』,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88.
- 김영자, 『한국의 복식미』, 민음사, 1992.
- 김희숙, “조선시대 士家의 상복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나수임, “한국의례복식의 기호학적 분석(1)-조선시대 혼례복식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4(3), 1969.
- 나수임, “한국의례복식의 기호학적 분석(2)-조선시대 상례복식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8(5), 2000.
- 박성실, 고부자 “성남 출토 동래 정씨 출토유물에 관한 소고”, 단국대 석주선민속박물관, 1989.
- 박장규, 『四禮參考便覽』, 삶과 꿈, 1999.
- 순남숙, “수의에 나타난 내세관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순남숙, “다산의 염습의 제도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 신의철, 『상례요람』, 도서출판 보경, 1990.
- 유관순, “우리나라 수의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 유관순, “문헌에 나타난 수의와 현행 수의와의 비교연구”, 한국복식학회지 복식, 34, 1998,79-89.
- 유송옥, 『한국복식사』, 수학사, 1998.
- 유희경,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1981.
- 유희경, 김미자, 강순제, “염습의” 안동김씨분묘 발굴조사보고서, 온양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 1989.
- 윤상윤, 『가정의례와 민속』, 신성출판사, 1996.
- 의례간행편집회, 『가정의례백과』, 청암출판사, 1997.
- 이선재, “조선시대 유교사상과 의례복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 이영애, “상장례 문화의 발전적 변화를 위한 국민의식구조와 태도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임재해, 『전통상례』, 대원사, 1990.
- 장철수, 『한국의 관혼상제』, 집문당, 1995.
- 조우현, “조선시대 상복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조효숙, 안지원, “현행수의의 실태 및 문제점”, 한국복식학회, 52(3), 123-137, 2002.
- 최덕수, 『관혼상제전서』, 일심문화사, 1990.
- 최용진, 박미희, “병원장례식장 소비자 불편실태 및 해소방안”, 제3회 장례문화박람회, 1998.
- www.dreamwiz.com
- www.jangeusa.com
- www.jangletotal.co.kr
- www.janguisa.net
- www.jumart.co.kr
- www.kpungnam.com

(2007. 3. 30 접수; 2008. 3. 14 채택)